

잡아함95 생문경

날짜: 6월 5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21>

신수장경 : 2-26a

한글장경 : 잡-1-104

남전장경 : a.3.57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 때에 생문 바라문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세존과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 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쭙었다.

“고오타마시여, 제가 들으매 고오타마께서는 ‘오직 내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마땅히 내 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는 보시하지 말라. 내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오타마시여, 만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사실입니까. 혹은 고오타마님을 비방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한 말입니까. 또는 법다운 말입니까. 그것은 법을 따르는 말이 아닙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꾸짖지나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한 것 뿐이다. 그것은 사실대로의 말도 아니요, 법다운 말도 아니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꾸짖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마땅히 내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마땅히 내 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라문이며,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두 가지 장애가 있으니 주는 이의 보시를 장애하고 받는 이의 이익을 장애한다. 바라문이며, 심지어 사부가 그릇을 씻은 남은 밥을 깨끗한 땅에 버리는 것도 거기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과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도 또한 복 문에 들어간다고 말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보시함이겠느냐. 그러나 바라문이며, 나는 다시 말하노니, 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계를 범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와는 같지 않느니라.”

생문 바라문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러하나이다. 고오타마시여, 나도 또한 ‘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고 계를 범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나이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시었다.

혹은 검거나 혹은 회거나
혹은 또 빨강거나
혹은 얼룩이거나 순 황금빛
노랑이거나 잿빛이거나
이러한 황소나 아름다운 송아지

몸도 튼튼하고 힘도 또한 갖추고
잘 길들여 빨리 달리며
무거운 짐을 실어 견디어 내면
그 본래 빛깔은 묻지도 않네.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제각기 태어난 곳 따를 뿐이니
혹은 크샤트리야 혹은 바라문
혹은 바이샤나 혹은 수드라
혹은 찬다알라의 하천한 것들.

그 태어난 곳은 각각 다르나
다만 깨끗한 계를 가지게 하고
무거운 짐의 번뇌를 떠나

순수하고 한결같이 범행 닳으면
그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요
이 세간에 있는 잘간이(善逝)거니
그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 얻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혜가 없고
일찍 바른 법을 듣지 못한
그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 없나니
착한 벗을 친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일 착한 벗들을 가까이 하고
여래와 성문을 가까이 하고
맑고 깨끗해 잘간이 믿으면
온 몸에 든든한 힘이 생기어

가고자 하는 길로 잘 나아가
큰 성받이 양반집에 태어나고
마지막에는 <반열반>에 드나니
큰 선인은 이렇게 말하노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생문 바라문은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
고 물러갔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